

明代 雲南 木氏 土司에 대한 試論

金 芝 鮮*

<목 차>

1. 들어가며—'儒教'라는 강력한 소프트파워
2. 변방에서 '忠義'를 맹세하다
3. 雲南 麗江의 木府—'木'과 '和'의 조화
4. 中原의 문화를 갈망하다
5. 木增의 《雲笈淡墨》—土司文學의 새로운 경계를 열다
6. 나오며—여전히 꿈꾸는 하나의 중국

1. 들어가며—'儒教'라는 강력한 소프트파워

元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변경지역에 거주한 소수민족을 중국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한 이후부터 清代 雍正연간에 이르기까지 改土歸流는 오랜 시간에 걸쳐 착실히 진행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중앙의 조정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 무력에 의해 改土歸流가 이루어진 지역이 있는 반면, 중앙의 조정에 대해 협조적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충성심을 표현하는 지역도 있었다. 사천의 산악지대 苗疆에 거주하는 묘족이 격렬하게 저항운동을 벌였다면, 雲南은 비교적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改土歸流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雲南에는 작은 독립 국가들이 존속해오다가 唐代에 이르러 南詔, 宋代에는 大理 등 비교적 세력이 굳건한 나라들이 세워졌다. 雲南 지역에서 세워진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불교를 숭상하는 문화였고, 중국적 세계질서와 관계를 끊임

* 梨花女大 中文科 講師(laken68@hanmail.net)

없이 유지하면서도 동아시아 서남부와 동남아시아 대륙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나가며 또 다른 국제질서를 독자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雲南이 貴州보다 中原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있고, 大理가 원의 군대에 의해 몰락하기 전까지 독자적인 왕국이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貴州보다 순조롭게 改土歸流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중앙의 집권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던 데 있다. 중앙의 집권세력이 따로 없었던 貴州와는 달리 雲南은 지배층만 바뀌면 그 체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의 추장에게 관직을 주고 중앙의 조정으로 포섭하는 土司制度는 커다란 저항 없이 雲南에서 수용될 수 있었다.

중국은 元代부터 700여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공, 둔전제도, 한족의 이주, 건축과 도로 건설 등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정책들을 통해 변경지역을 장악해나갔다. 그런데 여러 정책들 중에서도 변경의 토착세력을 漢化하는 데 유교를 통한 문화정책은 너무도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유교 문화와 중원의 생활양식은 변경에 있는 소수민족의 의식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어갔고, 오랜 세월동안 교육을 통해 습득된 중원의 학문은 그들의 정신력마저 장악하였다. 중원문화를 흠모하는 土司들은 한족 문인처럼 한시를 지었고, 중원의 예술을 향유하였으며, 뛰어난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다.

유교문화에 대한 소양이 뛰어난 土司들은 중앙의 조정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났고, 明末淸初의 격동기에는 스스로 漢族 遺民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土司도 있었다. 이에 본고는 중국이라는 틀 안으로 포섭되어가는 과정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改土歸流를 수용하였던 土司 세력이 대부분 유교 문화에 대한 소양이 뛰어났던 점에 주목하였다. 明末 土司 중에서도 가장 문화적 소양이 뛰어났고 중앙의 조정에 대해 충성심이 높았던 麗江 木氏 土司의 경우를 통해 하나의 ‘중국’, 변경의 漢化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유교’를 통한 문화정책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변방에서 '忠義'를 맹세하다

土司는 元代부터 清代 雍正연간 사이에 완전한 改土歸流가 이루어지기 전, 서남 변경을 다스리던 지방관을 가리킨다. 중앙의 조정은 변경 지역의 토착민을 회유하는 수단으로 그들의 지도자를 관료로 임명하여 토착민의 관습에 따라 자치를 하도록 허가하였고, 土司의 지위는 세습되었다. 《明史·職官志》에서 土官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土司가 明代 조정에서 정식으로 인정된 관직으로 다루어졌음을 보여준다. 《明史·土司列傳》에 “관직을 승계하려면 반드시 조정의 명을 받아야한다. 비록 만 리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궁궐로 와서 관직을 받아야한다.”¹⁾라고 하였다.

土司의 권력은 중앙의 조정, 황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졌고, 土司의 권력을 인정해주는 官印은 왕의 권력을 얻는 상징이 되었다. 土司가 官印을 약탈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明史·雲南土司列傳》에 “嘉靖 7년(1528), 土司 鳳朝文이 난을 일으켜 同知 이하의 관리들을 죽이고 州印을 훔쳤다. 병사를 일으켜 尋甸의 도적 安銓과 함께 雲南府를 침략하였다.”²⁾라는 문장이 보인다. 鳳朝文은 彝族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당시 조정에서 보낸 流官 同知로부터 관인을 약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황제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로부터 권력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남 지역의 土司들은 朝貢, 從征 등을 통해 중앙의 조정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었고, 조정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³⁾ 明代 초기에는 雲南 지역에 대해 조공을 크게 강요하지 않았다. 《大明會

1) 《明史·土司列傳》: 襲替必舉朝命, 雖在萬里外, 皆赴闕受職.

2) 《明史·雲南土司列傳》: 嘉靖七年, 土舍鳳朝文作亂. 殺同知以下官吏, 劫州印, 舉兵與尋甸賊安銓合犯雲南府.

3) 謝國先은 서남 지역의 土司들이 朝貢, 從征, 官印 등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조정에 충성을 드러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지방세력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하였다. <試論明代西南地區土司多民族國家意識的象徴> (《長江師範學院學報》 第30卷第

典》 권108 朝貢四 土官에 “湖廣，廣西，四川，雲南，貴州에서 내지의 土官은 3년에 한 번 사람을 보내 알현하고 공물을 바쳤다.”⁴⁾라고 되어있다. 즉 내지와 바깥의 경계를 나누어 ‘腹裏’에 있지 않은 土官, 중앙의 조정에 아직 우호적이지 않은 지역의 土司에게는 조공을 강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雲南의 土司들은 지극정성으로 조공을 하였다. 土司가 직접 가기도 하였고 직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력을 승계 받을 土司의 후계자가 직접 조공을 하러 가게 하였으며, 코끼리와 말, 은, 토산물 등 진귀한 물건들로 공물을 준비하였다.⁵⁾ 조정의 답례도 매우 후하여서 매년 연회를 베풀어주고 비단과 襲衣, 冠帶 등을 하사하였다.⁶⁾ 明末에는 조공에 대한 조정의 답례 규모가 커지자 呂坤(1536~1618)이나 謝肇淛(1567~1624) 등의 문인들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들며 규모를 줄이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⁷⁾

중앙의 조정은 이처럼 조공의 형식을 통해 상호간 신뢰관계를 구축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유교를 강조하며 중앙과 변경 간의 문화적 통합을 시도하였다. 변방의 소수민족에게 유교는 선진화된 문화로 간주되었고, 이들이 이후 하나의 ‘중국’에 귀의하는 데 강력한 힘이 되었다. 유교에 대한 강조는 元代부터 시작되었다. 《元史·世祖本紀》에 “至元 29년 4월 辛卯일에 雲南의 여러 路에 학교를 세우게 하였고, 敎官은 蜀에 있는 인사로 충당하게 하였다.”⁸⁾라고 되어있고, 《元史·選舉志》에 “至元 19년 여름 4월에 雲南의 여러

1期, 2014년2月) 참조.

- 4) 《大明會典》 권108 朝貢四 土官: 湖廣、廣西、四川、雲南、貴州腹裏土官, 遇三年朝覲, 差人進貢一次.
- 5) 예컨대 《明英祖實錄》 권130 正統 10년 6월 임술일에 隴川 土司는 “코끼리와 말, 은기 등의 공물을 갖추어 아들 恭立 등을 조공보냈다.(遣子恭立等俱來朝貢象、馬、銀器等物.)”라고 되어있고, 권268 景泰 7년 7월 기축일에 “頭目 多力法 등을 보내 코끼리와 금은 그릇 등의 공물을 바쳤다.(遣頭目多力法等貢象及金銀器皿等物.)”라고 되어있다. 《明史·湖廣土司》에 “嘉靖 7년(1528), 容美宣撫司, 龍潭安撫司가 매년 조공을 하러갈 때마다 천 명씩 거느리고 갔는데, 지나가는 데마다 소란을 피워댔다.(嘉靖七年, 容美宣撫司, 龍潭安撫司每朝貢率領千人, 所過擾害.)”라고 되어있다.
- 6) 《明英祖實錄》 권130 正統 10년 3월 갑신일, 6월 임술일, 권268 景泰 7년 7월 기축일 등에서 隴川 宣撫司가 조공을 온 것에 대해 조정에서 연회를 베풀고 옷감과 冠帶 등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 7) 이와 관련한 내용은 《明史·呂坤列傳》, 《五雜俎》 권4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路에 학교를 세워서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⁹⁾라고 되어있다.

유교 교육과 학교의 설립에 대한 강조는 明代 朱元璋에 이르러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서남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회유하였다. 《大明會典·禮部》學校에는 嘉靖 26년에 “귀순한 토관의 자손들은 구례에 따라 학교에 보내고 祿米를 먹이며 글을 배우게 하였다.”¹⁰⁾라고 하였다. 《明史·湖廣土司列傳》에는 “이후의 土官들이 응당 자제들을 모두 학교를 다니게 하면 점차 유교의 영향을 받아 미련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만약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관직을 세습할 수 없었다.”¹¹⁾라고 하였다. 土司가 누리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교가 정해놓은 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명나라 조정은 서남 지역 土司의 자제들을 과거 시험에 참여하게 하고 특례를 주기로 하였다. 《大明會典》 洪武 18년(1385)에는 雲南 지역에 대해 “학교에 소속되어있는 생원 중 재주가 있는 자가 있으면 상례를 따지지 않고 특채로 뽑도록 하였다.”¹²⁾라고 되어있고, 成化 4년(1468) “雲南과 貴州의 選貢은 관례에 따라 시험에 합격하게 하였다.”¹³⁾라고 되어있다. 이처럼 土司의 자제들이 과거 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독려했었으니 이들에게 유교는 관료 사회로 진입하는 데 필수적으로 선택해야하는 조건이 되었다.

酉陽, 永順, 容美, 卯洞, 思南, 沙溪 등의 土司들은 학교를 세워 자녀들을 교육시켰고, 유교 교육을 받은 土司들은 進士, 舉人, 貢生 등의 儒生의 자격으로 관직에 오르거나 鄉紳이 되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土司文學이 나왔는데, 湖南 容美의 田氏, 四川 酉陽의 冉氏, 雲南 麗江의 木氏, 雲南 麓川의 多氏 등의 土司는 가문 대대로 많은 문인들을 배출해내었다. 한편 酉陽 冉氏는 《冉氏家譜》

8) 《元史·世祖本紀》: 至元廿九年四月辛卯, 設雲南諸路學校, 其教官以蜀士充之.

9) 《元史·選舉志》: 至元十九年夏四月, 命雲南諸路皆建學, 以祀先聖.

10) 《大明會典·禮部》學校: 歸順土官子孫, 照舊例送學食廩讀書.

11) 《明史·湖廣土司列傳》: 以後土官應襲子弟悉令入學, 漸染風化, 以格頑冥, 如不入學者, 不准承襲.

12) 《大明會典·禮部》學校: 所屬學校生員有成才者, 不拘常例從便選.

13) 《大明會典·禮部》學校: 雲南、貴州選貢仍照例考送.

를 편찬하기도 하였는데, 가문과 혈통을 강조하는 가보를 제작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이미 유교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傣族인 隴川の 多氏는 대대로 이름에서 유교의 의미를 강조하며 드러내었다. 1대 선조 思倫發(1384~?) 이후로 성을 多氏로 바꾸고, 초기에는 多線瓜, 多旬法, 多享法, 多淦, 多鯨 등의 이름을 가진 土司들이 나왔다. 그런데 明代 중기 이후 유교 문화의 소양이 높았던 多士寧(1550년 전후 생존) 이후로 多忠, 多思順, 多安民, 多安靖, 多紹寧, 多勝祖, 多治國, 多世臣 등의 이름을 가진 土司들이 나왔다. 多士寧은 어린 시절부터 유학을 배웠고, 한족 문인 岳鳳(1550년 전후 생존)과 교유하며 유교의 가르침을 받았다. 유교적 의미를 담은 이름들은 바로 이들이 중원문화, 주류문화에 동화되어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중원문화를 동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土司일수록 중앙의 조정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明末清初의 격변기에 중앙의 조정, 한족의 왕조가 몰락하는 상황에서 漢族 遺民으로서의 정서를 보이는 土司들이 있었다. 大西軍 孫可望이 隴川の 土司 多安靜에게 투항하라고 하였지만,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투항하지 않았고, 湖北의 容美 土司는 청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명에 대한 충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桃花扇》을 읽고 계속 공연에 올렸다고 전해진다.¹⁴⁾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漢族 그 자체였던 것이다.

3. 雲南 麗江의 木府—‘木’과 ‘和’의 조화

앞서 언급한 바, 雲南은 역사적으로 南詔, 大里 등 독립된 왕조를 이루면서

14) 湖北의 容美 土司는 대대로 희곡에 조예가 깊어서 戲樓를 만들고 연극을 공연하였다고 전해진다. 특히 孔尙任과 깊이 교류하며 《桃花扇》을 읽고 공연으로 올렸는데, 《容美土司史料彙編》에 “九峰의 연회에 모인 손님들은 항상 여배우에게 《桃花扇》을 연주하라고 하고 술을 마셨다.(九峰宴客, 女優恒演《桃花扇》侑酒.)”라고 되어있다.

고유한 정치적 세력을 형성해왔던 곳이다. 南詔는 당나라의 羈縻 체제를 수용하면서도 동남아시아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해나갔고, 大理 역시 南詔의 정치체계와 행정조직을 그대로 계승하며 독자적인 세력과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북으로는 四川 서부, 남으로는 베트남 북부, 서로는 인도와 미얀마, 동으로는 貴州와 廣西의 일부까지 지배하였고, 대대로 佛敎를 신봉하였다. 이는 南詔부터 이어져 온 전통으로 역대 왕들 가운데 9명이 왕위를 禪讓하고 出家하여 승려가 되기도 하였다.

고유한 역사성과 지역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었기에 원나라가 공격을 해왔을 때 대리의 잔여세력들이 中原의 조정에 귀의해야하는 상황을 받아들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元史·地理志》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貞元연간에 그 땅은 南詔에 귀속이 되었고, 元 憲宗 3년에 大理를 정복하였다. 金沙江을 따라 건너갔는데 納西族이 고집을 부리며 복종하지 않았다. 4년 봄에 평정하고 茶罕章管民官을 세웠다. 至元 8년 宣慰司를 세우고, 13년에 다시 麗江路로 바꾸고, 軍民總管府를 세웠다.”¹⁵⁾

그러나 納西族의 추장 阿宗阿郎은 군대를 이끌고 귀의하였고, 원나라 조정은 阿宗阿郎에게 麗江路軍民宣撫司라는 관직을 내렸다. 《元史·世祖本紀》에는 寶祐 元年(1253)에 징기스칸이 雲南까지 내려가 金沙江을 건너갔던 상황에 대해 “大渡河를 건너 다시 2천 여리를 지나가니 金沙江에 이르렀다. 가죽주머니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자 納西族의 추장이 맞이하여 나와 항복을 하였다. 그 땅은 대리의 북서 4백 여리에 있었다.”¹⁶⁾ 이곳이 바로 麗江이고 納西族의 추장은 木氏 土司의 선조 阿宗阿郎을 가리킨다.

그 후 명나라의 주원장이 雲南을 평정하였을 때, 阿宗阿郎의 4세손인 阿甲阿得 역시 명나라 군대에 귀의하였다. 麗江의 土司 木公(1494~1553)가 쓴 《木

15) 《元史·地理志》: 貞元中, 其地歸南詔. 元憲宗三年, 征大理, 從金沙濟江, 麼、些負固不服. 四年春, 平之, 立茶罕章管民官. 至元八年, 立宣慰司. 十三年, 改爲麗江路, 立軍民總管府.

16) 《元史·世祖本紀》: 過大渡河, 又經行山穀二千餘里, 至金沙江, 乘革囊及筏以渡. 摩娑蠻主迎降, 其地在大理北四百餘里.

氏宦譜》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洪武 15년(1382), 명나라 군사가 남하하여 大理 등의 지역을 정복하였다. 阿甲阿得이 무리를 이끌고 나와 먼저 귀의하고자 하였고, 總兵官征南將軍 太子太師 穎國公 傅友德 등이 천자에게 아뢰자 천자는 이들에게 木이라는 성을 하사해주었다.”¹⁷⁾

阿琮阿郎은 스스로 木德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유교의 정신을 잘 표현한 이름이라 하겠다. 한편 乾隆 8년에 편찬된 《麗江府志略》에는 “洪武 초기에 土官에게 木氏 성을 내려준 이후로 土官의 가문과 자제들만 이어받았다. 木氏를 제외한 나머지는 3세대 이후에는 阿氏가 되었고, 5세대 이후에는 和氏가 되었다. 雲南으로 들어와 이름을 올리는 자는 바로 반드시 성을 和氏로 바꾸어야 했다. 이 때문에 이 마을에는 성이 和氏인 사람이 가장 많이 산다.”¹⁸⁾라고 되어 있다.

이로부터 官과 民 사이에 구별이 생기어 관료는 木氏, 평민은 和氏가 되었다. 徐霞客(1587~1641)이 쓴 《徐霞客遊記》에는 “다만 官과 民을 구분하는 두 가지 성만 있는데, 관료의 성은 木氏이고 백성의 성은 和氏이며 다른 성씨는 없다.”¹⁹⁾고 하였다. 이어 “처음에는 모두 성이 麥氏였다. 한나라부터 지금 왕조 초기까지 그러했는데, 태조가 이에 木氏를 하사하였다.”²⁰⁾라는 부연설명이 보인다. 官과 民을 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尊卑의 서열을 인정하는 것이고, 유교적 질서가 사회에 구현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木德 이후로 木氏 土司는 조정이 임명하는 세습 土知府가 되었고 麗江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 중앙의 왕조에 충성하면서 대량의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여 中原 문화를 학습하고자 하였다. 가족 내부에서도 유교 교육에 힘을 기울였

17) 《木氏宦譜》: 大明洪武十五年, 天兵南下, 克服大理等處, 得率衆首先歸附, 總兵官征南將軍 太子太師穎國公傅友德等處奏聞, 欽賜以木姓.

18) 乾隆《麗江府志略》: 明洪武初, 賜土官姓木後, 惟承襲及同堂舍人木姓, 三世以降姓阿, 五世以降姓和, 卽流寓入籍者, 必改姓和, 故今里氏和姓居多.

19) 《徐霞客遊記·滇遊日記七》: 止分官民二姓, 官姓木, 民姓和, 無他姓.

20) 《徐霞客遊記·滇遊日記七》: 初俱麥姓, 自漢至國初, 太祖乃賜爲木.

고, 그 결과 木氏 가문 대대로 많은 문인들이 배출되었다. 木公은 《雪山始音》, 《隱園春興》, 《萬松吟卷》, 《雪山庚子稿》, 《玉湖遊錄》, 《仙樓瓊華》 등의 시문집을 내어 804수의 시 작품을 남겼고, 木靑(1569~1597)은 《玉水淸音》이라는 시집을 내었으나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木氏 土司의 문학 전통은 木增(1587~1646)에 이르러 만개하게 된다. 木增의 자는 長卿, 益新, 호는 華嶽, 生白이고 納西族식 이름은 阿宅阿寺이다. 萬曆 26년(1598) 11세에 知府의 직을 맡았다가 天啓 2년(1624) 38세에 이미 정계를 은퇴하였고 관부를 白沙에서 獅子山 앞으로 옮겼다. 그리고 玉龍山 남쪽의 芝山에 해탈림이라는 별장을 짓고 여기에서 시문을 지으면서 지냈다. 《山中逸趣》, 《芝山雲邁集》, 《嘯月堂空翠居集》, 《竹林野韻》 등의 시집과 類書 《雲邁淡墨》등을 남기고 있다.

木公이 木氏 家譜와 사당을 지었다면, 木增은 木府의 건축을 크게 정비하며 유교 문화의 정신을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木府에는 木家院, 木氏勳祠, 飯依堂, 壽星樓, 五鳳樓, 玉皇閣, 三清殿, 光碧樓, 經堂, 家廟, 萬卷樓, 玉音樓 등의 건물들이 있는데, 徐霞客은 木府를 보며 “궁실의 화려함은 제왕의 것을 모방하였다.”²¹⁾라고 하였다. 木府는 中原 황실의 구조와 풍격을 모방하여 지어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麗江의 관청은 산의 남쪽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동쪽으로 玉河를 향하고 있다.麗江의 여러 주택은 대부분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로써 木의 기운을 받고 있다.”²²⁾라고 한 문장이다.

전통 시기 건축 구조는 일반적으로 坐北朝南이라는 풍수지리를 따르지만, 木府와 麗江의 주택은 대부분 동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음양오행으로 동쪽에 해당하는 ‘木’이라는 상징을 건축 구조에 투영한 것이기도 하고, 황실이 하사한 木氏를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徐霞客은 木府에 대해 “대대로 커다란 전쟁이 없었던 데다가 광물 생산이 유달리 번창하여 여러 土司 중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한다.”²³⁾라고 하였으니, 木

21) 《徐霞客遊記·滇遊日記六》: 宮室之麗, 擬於王者.

22) 《徐霞客遊記·滇遊日記六》: 郡署麗其南, 東向臨玉河, 麗江諸宅多東向, 以受木氣也.

23) 《徐霞客遊記·滇遊日記六》: 世代無大兵燹, 且產礦獨盛, 宜其富冠諸郡云.

氏 土司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황실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지원군과 자금을 보내 황실의 신임을 얻었다.²⁴⁾ 《明史·雲南土司列傳》에는 “萬曆 38년 知府 木增이 오랑캐를 정벌하는 데 재물을 보냈는데, 은자 2만 여 냥을 지원금으로 보내주었다.”²⁵⁾라고 되어있고,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萬曆 47년에 木增이 다시 遼寧에 주둔하는 군대의 비용으로 은자 1만 냥을 보내주었다. 泰昌 元年에 木增의 공로를 기록하고, 은과 옷감을 상으로 내렸다. 그의 아들 木懿와 舍目 각각에게 차등적으로 은화를 상으로 내렸다. 天啓 2년 木增이 병을 고하며 加授한 左參政을 사직하였다. 5년에 특별히 木增에게 명을 내려 그 충성을 표창하게 하였다. 雲南의 여러 土官들 중에서 詩書를 알고 예를 좋아하며 의리를 지키는 데 麗江 木氏가 으뜸이었다.”²⁶⁾

木增은 天啓 2년 36세의 나이에 정계를 떠나서 解脫林에서 은거하며 본격적으로 시 창작에 몰두하게 된다. 사직을 하면서도 황제에게 병을 고하며 물러났는데, 土司로서 평생 누렸던 모든 권력은 황제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밝히는 행동이었다. 황제는 그의 충성을 표창하였고, 여러 土司들 중에서 으뜸이라고 칭송하였다. 木增은 누구보다 충실한 황실의 신하였다.

원래 木氏 가문은 대대로 불교를 신봉하였고,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불교 사원 理塘大寺를 완공하였으며, 木增은 여러 차례 불경들을 간행하기도 하였다.²⁷⁾ 그림에도 中原의 우아한 문화를 흠모하여 시를 짓고 그림과 서예를 수집하며 거문고를 즐겨 타는 등의 생활은 木氏 土司의 정신적 세계를 강하게 지배하였다. 스스로 중앙의 조정으로 귀의하고자 하였고, 清代에 이르러 대대

24) 황실에서는 ‘輯寧邊境’(1543, 木公), ‘喬木世家’(1560, 木高), ‘西北藩籬’(1574, 木東), ‘忠義’(1620, 木增) 등의 편액을 하사하였고, 神宗이 하사한 ‘忠義’ 두 글자가 새겨진 편액은 현재 麗江의 木府 앞 石牌坊에 있다.

25) 《明史·雲南土司列傳》: 三十八年, 知府木增以征蠻軍興, 助餉銀二萬餘兩.

26) 《明史·雲南土司列傳》: 四十七年, 增復輸銀一萬助遼餉. 泰昌元年, 錄增功, 賞白金表裏, 其子懿及舍目各賞銀幣有差. 天啓二年, 增以病告, 加授左參政致仕. 五年, 特給增諡命, 以旌其忠. 雲南諸土官, 知詩書好禮守義, 以麗江木氏爲首云.

27) 현재 木增이 간행한 《慈悲梁皇儀法》은 麗江縣圖書館에, 티베트 불교 경전 《大藏經》은 라싸의 大昭寺 등에 소장되어있다.

적인 改土歸流가 시행되면서, 雍正 元年(1723) 木氏 土司는 자발적으로 改土歸流가 되기를 청하였다. 改土歸流의 역사상 유교를 통한 문화정책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 할 수 있다.

4. 中原의 文化를 갈망하다

지역적으로 고립된 변경에서 지내기에 土司들은 유교를 흠모할수록 中原문화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한족 문인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이었다. 湖北 容美 土司의 경우, 吳國倫(1524~1593)이 田九齡(1580년 전후 생존)의 《紫芝亭詩集》에 序를 써주었고, 文安之(1592~1659)가 田玄(1590~1646)의 《秀碧堂詩集》에 평점을 남기고 序를 써주었으며, 田宗文(1590년 전후 생존)의 《楚騷館詩》에 孫鵬初(1556~1617)가 序를 써주었다. 이처럼 대대로 시를 창작하고 漢文化를 향유하는 土司들은 中原의 인사와 활발하게 교류해왔다.²⁸⁾

木氏 土司 역시 여러 한족 문인과 돈독한 교류를 해왔다. 木公의 시집 《雪山始音》에 張志淳(1457~1538)이, 《玉湖遊錄》에는 張志淳의 아들 張含(1479~1565)이, 《萬松吟卷》, 《仙樓瓊華》에는 楊慎(1488~1559) 등의 문인이 서문을 써주었다. 더욱 특별한 것은 木公 생전에 楊慎이 木公의 작품집에서 시 114수를 선별하여 《雪山詩選》이라는 시집을 간행한 것이다. 여기에는 楊慎과 張含, 李元陽(1497~1580) 등의 문인들이 木公의 작품에 대해 평점을 남겼다.

28) 容美의 田氏 土司들은 明代 前後七子の 복고주의를 지지하였고 後七子 중 王世貞, 吳國倫 등과 교류하였다. 田舜年은 《桃花扇》을 읽고 孔尙任에게 직접 사람을 보내 詩詞의 창법에 대해 배워오도록 하였고 顧彩 등을 容美로 초빙하여 《桃花扇》을 연주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였다고 한다. 容美 土司가 한족 문인과 교류한 상황에 대해서는 胡紹華의 <論容美土司文學與民族文化融合> (《民族文學研究》 2012年第1期) 참조.

土司들이 중원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중 하나는 편적되어간 문인들과의 교류였다.²⁹⁾ 그 대표적인 예가 木公과 楊慎의 관계다. 楊慎은 嘉靖 3년(1524) 世宗이 大禮儀 사건을 일으키자 王元正(1511년 전후 생존) 등과 함께 간언하였다가 雲南 永昌으로 편적되었고, 이로부터 평생 雲南에서 지냈다. 문학적 소양이 높았던 木公에게 이는 중원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清代 문인 張奉書(1810년 전후 생존)는 <重刻升庵外集跋>에서 “덤불 가득한 雲南의 풍습을 鄒나라와 魯나라, 洙水와 泗水의 풍속으로 변화시켰으니, 오늘날 사람들도 그를 받들어 제사지내고 존경하여 스승으로 모신다.”³⁰⁾라고 하였으니, 楊慎이 雲南에 미친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楊慎과 함께 《雪山詩選》에 평점을 남긴 문인 李元陽은 白族 출신이다. 《豔雪臺詩》, 《中溪漫稿》 등의 시문집과 성리학 저서 《心性圖說》, 이외 《嘉靖大理府志》, 《萬曆雲南通志》 등의 地方志를 남겼다. 이처럼 木公은 한족 문인 외에도 한문화의 영향을 받은 雲南의 인사들과 두루 교류하였다. 《雪山詩選》의 가치는 단순히 納西族 출신 문인 木公이 쓴 작품집을 넘어 納西族과 漢族, 白族 문인이 서로 학문적으로 교류한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텍스트라는 데 있다.

木公과 楊慎만큼 木增과 徐霞客 역시 돈독한 관계였다. 徐霞客은 楊慎처럼 편적된 문인은 아니었지만 오지를 여행하는 인사였기에 木增과의 만남이 가능하였다. 木增과 徐霞客이 서로를 존중하며 만나는 상황은 《徐霞客遊記》에 잘 나타나있다. 徐霞客은 麗江을 여행하던 중 崇禎 12년(1639) 1월 29일에 解脫林에서 木增을 만난다. 이후로 木增은 徐霞客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고 극진하게 대우를 해주며 여행비용까지 후하게 지원해주었다. 이 때 木增은 무엇보다 徐霞客과 학술적인 교류를 원한다.

29) 沈海梅는 관학이 설립되지 않았던 雲南에서는 중앙의 조정에서 편적되어간 문인이나 한문화의 교육을 받은 지역 인사들이 私學教育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가르치는 형태로 私學教育이 이루어져온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明代雲南文化教育中的私學>, 《思想戰線》 1999年第3期.

30) <重刻升庵外集跋>: 使滇南榛蕪之習, 化爲鄒魯洙泗之風, 迄今人崇祀之, 尊爲先師.

내가 木增의 편지를 읽어보니 黃石齋(1630년 전후 생존)에게 글을 써줄 것을 요청하면서 나에게도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또 사람을 省으로 보내 吳方生(1630년 전후 생존)을 초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전에 木增과 내가 만나 천하의 인물에 대해 논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聖人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黃石齋 뿐입니다. 그의 書畫는 翰林院에서 으뜸이고, 문장은 나라에서 으뜸이며, 인품은 천하의 으뜸이고, 그 학문은 周公과 孔子를 직접 이어 받아 고급에 으뜸입니다.”³¹⁾

木增은 徐霞客에게 편지를 보내 黃石齋라는 문인의 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전한다. 徐霞客이 그 이전에 黃石齋의 문장과 인품이 뛰어난 뿐 아니라 주공과 공자를 이어받을 만한 학자라고 소개했기 때문이다. 유교로 상징되는 中原 문화를 갈망하는 木增의 모습은 자신의 넷째 아들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하는 편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2월 10일에 大把事가 전달하는 木增의 뜻은 다음과 같다.

大把事が 두 개의 탁자를 마련해서 앉은 다음 종이와 붓을 올리고 소매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어 말하였다. “저희 집 주인께서 아들이 이제 막 諸生이 되었는데, 글을 배우고는 있으나 이 일대에 이름난 스승이 없어 中原의 문장 풍격을 보지 못했으니, 아들에게 글 한 편 써주시어 문장의 법칙을 깨닫게 해주시면, 평생 감복하겠다고 하십니다.”³²⁾

변경의 土司에게 中原의 풍격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木增은 徐霞客이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도 中原 문화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木公이 또 여러 차례 사람들을 불러와 손님을 환대하는 예의를 보여주었다. 도중에 通事와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³³⁾라고 한 대목을 보면,

-
- 31) 《徐霞客遊記·滇遊日記七》：讀木公書，乃求余乞黃石齋紋文，並索余書，將令人往省邀吳方生者。先是，木公與余面論天下人物，余謂至人惟一石齋。其字畫爲館閣第一，文章爲國朝第一，人品爲海宇第一，其學問直接周、孔，爲古今第一。
- 32) 《徐霞客遊記·滇遊日記七》：大把事設二卓，坐定，卽獻紙筆，袖中出一小封，曰，家主以郎君新進諸生，雖事筆硯，而此中無名師，未窺中原文脈，求爲賜教一篇，使知所法程，以爲終身佩服。
- 33) 《徐霞客遊記·滇遊日記七》：而又屢令人來，示其款接之禮也。途中與通事者輒唧唧語，余不

木增은 평소에 納西族의 언어를 사용하는, 내면적으로는 納西族의 정체성을 지닌 변방의 土司였다. 그럼에도 천 수가 넘는 詩를 남기고 명사들의 서화를 수집하는 것이 취미이며, 한족 문인과 교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木增의 문화적 정체성은 유교와 한족 그 자체였다.

木增이 한족 문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木增의 학문적 소양이 높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 中原의 풍격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에 있었다. 徐霞客은 <山中逸趣序>에서 “木增은 평생 문아함을 드러내었고, 온 천하의 문인과 교류하였다. 글을 수집하고 시를 보내며 책을 사고, 마음이 잘 맞아 관계를 맺은 자들과 서로 돈독하게 지냈다. 소식을 주고받으며 中原의 旗와 북을 함께 하였다.”³⁴⁾라고 하였다. 書畫를 아끼고 시로 교류하며 中原문화의 세례를 기꺼이 받고자 하는 모습 자체가 한족 문인이 칭송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徐霞客만큼 木增과 돈독한 우애를 나눈 한족 문인으로 毛晉(1599~1659)이 있다. 책을 수집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木增이기에 江蘇의 저명한 藏書家이자 出版家였던 毛晉과 교류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木增은 자신의 시문집 《雲蕩芝山集》과 《雲蕩淡墨》, 木公의 시집 《萬松吟卷》을 汲古閣으로 보내 간행하게 하였다.³⁵⁾ 직접 그린 그림과 시를 毛晉에게 보내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는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시는 시 <題麗江木生白畫>, <月夜懷寶月主人却寄> 등은 毛晉의 《野外詩》에 수록되어있다.

당시 서적의 출판은 크게 徽州, 浙江, 福建 등을 중심으로 각기 판각하는 풍격이 달랐는데, 汲古閣은 浙江의 우아한 판각 풍격의 영향을 받아서 서적을 간행하는 곳이었다. 麗江의 納西族 문인이 자신의 작품집을 강남까지 보내 汲古閣에서 간행하게 한 것은 江南과 滇南의 지역문화가 서로 교류하였던 현장이라

之省.

34) <山中逸趣序>: 公世著風雅, 交滿天下, 征文者, 投詩者, 購書者, 以神交定盟者嚶鳴相和, 聲氣往來, 共中原之旗鼓.

35) 毛晉의 <釋莊義序>에 “이번에는 다시 木增이 자신이 쓴 《芝山雲蕩集》과 《雲蕩淡墨》 등의 시집과 윗대 조부 木公의 遺文을 보내줘 읽게 되었다.(至是, 公復以所著《芝山》、《淡墨》諸集, 並得讀公大父雪山先生之遺文.)”라는 문장이 보인다.

할 수 있다. 한편 崇禎 14년(1641) 수해가 나서 汲古閣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木增이 편지와 돈을 보내 汲古閣의 서적들을 사들이기도 하였다.³⁶⁾

木增은 강남 문인들과 교류하는 방식은 주로 ‘神交’, 즉 만난 적은 없지만 편지로 우의를 나누는 것이었다. 《雲邁淡墨》 제6권 <釋莊義>에는 趙士春(1599~1675)의 <敍釋莊義>가 수록되어있는데, 趙士春은 木增과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지만 글을 써준 경우이다.³⁷⁾ 趙士春은 <敍釋莊義>에서 “같은 고을 사람 쫓뎀이 원래 木增과 교류하여 이미 木增에게 서문을 써주었다. 이에 그 사람이 소개하여 다시 나에게 서문을 써달라고 청하였기에 서문을 써주게 되었다.”³⁸⁾라고 하였다. 趙士春은 江蘇 常熟 사람으로 木增이 강남의 문인들과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木增의 저서 《雲邁淡墨》은 강남 출판문화에서 꽤 주목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徐霞客遊記》에서 徐霞客이 《雲邁淡墨》을 교정해줄 때 원래는 8권으로 나누어져 있었다.³⁹⁾ 그런데 《四庫全書總目提要》 권132 子部 42에는 “《雲邁淡墨》 6권 浙江 吳玉墀家藏本”⁴⁰⁾이라고 되어있다. 당시 江南에서 6권본의 《雲邁淡墨》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인데, 6권본과 8권본은 체제뿐 아니라 판각된 글자의 풍격이 완전히 다르다.⁴¹⁾ 그렇다면 《雲邁淡墨》은 강남에서 적어도 두 번 이상 간행되었고, 출판 시장에서 이 서적에 대한 수요가 있었

36) 이와 관련한 내용은 毛晉의 아들 毛褒(1640 전후 생존)가 쓴 <先府君行實>에서 찾아볼 수 있다. 木增이 “금과 琥珀, 薰陸 등 여러 진귀한 물품들을 함께 보내주었다.(兼致金琥珀薰陸諸異品.)”라고 전하고 있다.

37) <敍釋莊義>에 “나는 木增을 알지 못하지만 그의 책을 보고 그 사람됨을 알았고, 그 사람됨을 알고 장자의 뜻을 해석한 것에 더욱 탄복하게 되었다.(予非識木翁也, 見其著因識其人, 識其人益佩服其釋莊之義.)”라고 되어있다.

38) <敍釋莊義>: 因同邑子晉兄素神交木增, 已爲敍之矣. 乃介其使臣復請予敍, 遂弃之.

39) 《徐霞客遊記》 2월 6일에 “계속 교정하고 부문을 나누었는데, 책의 부문은 여덟 항목으로 나누었다.(連校類分標, 分其門爲八)”라고 되어있다. 처음에 《雲邁淡墨》은 8권으로 분류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40) 《四庫全書總目提要》 권132 子部 42: 《雲邁淡墨》六卷浙江吳玉墀家藏本.

41) 楊林軍은 雲南省圖書館에 소장된 6권본과 上海圖書館에 소장된 8권본의 판각된 글씨체, 각 페이지마다 판각된 글자 수 등이 다른 것을 들어서 서로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풍격으로 판각되는 판본들이 존재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明代麗江土司木增遺作《雲邁淡墨》述評>(《雲南社會科學》 2016年第2期) 참조.

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사실 木增은 毛晉에게 《雲邁淡墨》을 간행해달라고 부탁하기 이전에 葉榆 崇聖寺에서 구한 一行禪師의 《華嚴懺》을 직접 毛晉에게 보내어 불경이 세상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⁴²⁾ 불경을 麗江에서 간행하지 않고 굳이 강남까지 보내어 간행하게 한 것은 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변경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중원문화와 교류를 시도한 것이면서 密敎의 영수 一行禪師의 《華嚴懺》을 강남의 출판문화로 전파하는 데 공헌한 것이다. 다양한 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데 木增이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5. 木增의 《雲邁淡墨》—土司文學의 새로운 경계를 열다

土司文學은 대부분 가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다. 麗江의 木氏 土司가 그렇고, 姚州의 高氏 土司, 容美의 田氏 土司, 酉陽의 冉氏 土司 등 모두 가문을 중심으로 土司文學이 나왔다. 유학 교육을 받은 土司 가문에서 주로 進士, 舉人, 貢生 등의 儒生이 나왔고, 이들이 대대로 가문의 전통을 지키며 土司文學 창작에 참여해왔다. 이 때문에 土司文學은 외부로 개방되어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문 내에서만 형성되어 폐쇄적인 형태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明代 초기부터 雲南과 四川 등지에 官學이 설립되기는 하였지만⁴³⁾ 당시 麗江에는 官學이 없었다. 이는 木增의 넷째 아들이 글을 배우기 위해 鶴慶府로 유학 간 사실⁴⁴⁾에서 확인된다. 木氏 土司는 이러한 상황에서 家學의 환경을

42) 毛晉이 쓴 <釋莊義序>에 “먼저 木增은 唐代 一行禪師의 《華嚴懺》을 간행해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나에게 부탁하였다.(先是, 公以唐一行禪師《華嚴懺》屬予流通.)”라고 되어있다.

43) 《明太祖實錄》 권239 洪武 28년(1395)에 “雲南과 四川 등의 변방 土官들은 모두 학교를 세워서 그 가문의 후손들 중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가르쳤다.(其雲南、四川邊夷土官, 皆設立儒學, 選其子孫弟侄之俊秀者以教之.)”라고 되어있다.

44) 《徐霞客遊記·滇遊日記七》 2월 8일에서 “넷째 아들의 이름이 宿으로 鶴慶府의 泮宮에 막 입학하였다.(第四名宿, 新入泮鶴慶.)”라는 문장을 보건대 당시 麗江에는 관학이 없어 넷째 아들을 유학 보낸 것으로 보인다.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木氏勳祠 건립이었다. 木公은 嘉靖 7년 1528년 玉龍山の 남쪽, 麗水를 마주한 자리에 거대한 규모의 木氏勳祠를 짓고 《木氏宦譜》를 편찬하였다. 家學에서 勳祠와 家譜는 너무도 중요한 교재가 된다.

이어 木府에서는 거금을 들여 수많은 서적들을 모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木府에는 이미 여러 서적과 書畫를 보관하고 있는 三層樓가 있었는데, 木增이 이를 대대적으로 증축하여 萬卷樓로 만들었다. 乾隆《麗江府志略》에 “木增은 또 책을 읽고 글을 써서 남기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서적을 매우 많이 소장하여서 집에는 萬卷樓라는 서가가 있다.”⁴⁵⁾라고 되어있다. 木增의 시 <檢書>에도 “만권의 책은 마치 鄴侯의 장서와 같네.(萬卷渾如鄴架藏)”라는 구절이 있다. 萬卷樓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官學도 없었던 麗江에서 萬卷樓는 거대한 도서관이자 박물관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馮時可(1541~?)가 쓴 《木氏六公傳》에는 木東(1534~1579)에 대해 “亭堂의 북쪽 모퉁이에 거문고와 책, 書畫 등을 차례로 진열해두었다.”⁴⁶⁾라고 전하고 있다. 木東이 木增의 조부였으니 그 많은 서적과 書畫 등이 가문 내에서 전해졌을 것이고, 家寶들이 축적되면서 木增에 이르러 萬卷樓라는 거대한 자료 보관소가 완성될 수 있었다. 萬卷樓는 勳祠, 家譜와 함께 木府에서 家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이 되었다.

木公부터 본격화된 家學 전통의 결실은 木增에 이르러 만개하게 된다. 木增은 《山中逸趣》, 《芝山雲邁集》, 《嘯月堂空翠居集》, 《竹林野韻》 등의 시집에서 천 여수의 詩와 詞, 賦 등을 남겼고, 천문, 지리, 풍속, 道佛의 잠언, 小學, 동식물, 治病, 농사,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망라한 類書 《雲邁淡墨》을 썼다.

《雲邁淡墨》이 언제 간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徐霞客이 《雲邁淡墨》을 교정해준 것이 崇禎 12년(1639)이고, 《雲邁淡墨》 제6권에 수록된

45) 乾隆《麗江府志略》: 增又好讀書傳, 極群籍, 家有萬卷樓.

46) 《木氏六公傳》: 築亭堂之北隅, 琴書圖畫, 以次羅列.

毛晉의 <釋莊義序>에 “때는 崇禎 16년 昭陽에서 末年 7월 3일”⁴⁷⁾라고 밝히고 있으니, 적어도 崇禎 16년(1643) 이후에 판각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徐霞客遊記》에 의하면, 崇禎 12년 2월 2일 오후에 木增은 徐霞客에게 편지를 보내 《雲邁淡墨》의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한다.⁴⁸⁾ 하지만 현재 《雲邁淡墨》에 수록된 서문에는 徐霞客이 쓴 서문이 없다. 대신 《山中逸趣》에 徐霞客이 써준 跋文이 수록되어있는데, 《徐霞客遊記》에서 말한 서문은 《雲邁淡墨》이 아니라 《山中逸趣》의 跋文이다. 《徐霞客遊記》의 원고가 徐霞客 사후에 정리되면서 나온 실수로 보인다. 2월 4일 《雲邁淡墨》을 교정해주는 상황에 대해 徐霞客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鷄足山の 어느 스님이 省에서 《雲邁淡墨》을 베껴 쓴 것을 木增에게 바쳤다. 木增은 곧바로 大把事를 시켜 나에게 보여주고 교정해주시기를 부탁하였다. 스님이 쓴 洪武體는 매우 가지런하였지만, 誤字가 매우 많았고, 뒤섞이고 빠지고 순서가 없는데다 중첩되고 뒤바뀐 것 역시 심했다. 나는 대략 교정을 하고서 이 책은 부문을 잘 나누어 편집해야 틀리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⁴⁹⁾

徐霞客은 《雲邁淡墨》의 체계가 잘 잡히지 않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며 문장을 발췌해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徐霞客이 교정을 해주었음에도 《雲邁淡墨》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類書란 經史子集의 여러 책에서 문장을 발췌하여 항목별로 분류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엮은 서적인데, 《雲邁淡墨》은 무엇보다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려는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제1권을 예로 들어 보자면, 처음은 儒佛道の 三教嘉言으로 시작된다. 다음

47) <釋莊義序>: 時崇禎十有六年歲在昭陽協洽相月哉生明.

48) 《徐霞客遊記·滇遊日記七》 2월 2일에 “오후에 또 大把事를 보내 자신이 쓴 《雲邁空淡墨》에 서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했다.(下午, 又命大把事來, 求作所輯《雲邁空淡墨》序.)”라고 되어있다.

49) 《徐霞客遊記·滇遊日記七》: 有雞足僧以省中錄就《雲邁淡墨》繳納木公. 木公即令大把事傳示, 求爲較政. 其所書洪武體雖甚整, 而訛字極多, 既舛落無序, 而重疊顛倒者亦甚. 余略爲標正, 且言是書宜分門編類, 庶無錯出之病.

으로 二十八宿歌, 天干地支 등 천문과 관련한 내용이 이어지고, 각 민족의 풍습, 동물과 식물, 전설과 逸事 등의 내용이 뒤이어 기록되어있다. 그 다음으로 氣의 運行, 음식금지, 治病, 건강 상식, 농경의 경험, 각종 점술 등에 대한 내용이 열거되어있다. 이처럼 제1권만 보더라도 어떤 근거로 이 내용들이 함께 수록되었는지 공통분모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제8권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주제가 여러 번 중복되어 나오기도 한다.

분류체계의 난잡함에 대한 비판은 《四庫全書總目提要》 권132 子部 42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木增의 字는 生白으로 雲南 麗江 土司의 세습 土知府이다. 군사비를 원조하고 오랑캐를 정복하여 그 공으로 左布政使로 직위가 올라갔다. 겨우 서른도 안 되어 사직하였는데, 天啓 5년에 특별히 황제가 명을 내려 그 충성을 표창하였다. 木增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文士들과 왕래를 많이 하였다. 이 책은 隨筆과 다른 글에서 발췌해서 엮은 것으로 대략 여러 책의 原文을 기록하였지만 명확히 설명한 부분이 없다. 또 불교와 도교 경전의 문장을 많이 섞어 써서 난잡하고 체계가 서지 않았다. 특히 雲南에서 나온 서적이기에 당시 제법 널리 전해졌다고 한다.⁵⁰⁾

木增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문사들과 왕래를 하였으며 중앙의 조정에 대해 충성을 다하였다는 점에서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계를 안고 있는 《雲邁淡墨》이지만, 納西族 문인이 쓴 서적이라는 사실이 당시 강남 문인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난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雲邁淡墨》의 서술방식은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다. 수많은 서적들을 소장하고 여러 類書들을 참조하였을 木增이 기존의 정통 類書의 형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는다.

그렇다면 木增이 《雲邁淡墨》을 편찬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木增은 <雲邁淡墨小引>에서 “이에 이 책 제목을 ‘淡墨’이라고

50) 《四庫全書總目提要》 권132 子部 42: 增字生白, 雲南麗江土司世襲土知府, 以助餉征蠻, 功晉秩左布政使. 年甫三十, 卽謝職. 天啓五年, 特給誥命以旌其忠. 增好讀書, 多與文士往還. 是書蓋其隨筆摘抄之本. 大抵錄諸書原文, 無所闡發, 又多參以釋典道藏之語, 未免糅雜失倫. 特以其出自蠻陬, 故當時頗傳之云.

하였다. 무릇 속담에 널리 기록하는 것보다 묶은 먹물이 낫다고 하였다.”⁵¹⁾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하였다. 이어 “이 책에는 몸과 마음에 보탬이 있는 글도 있고,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도 있다. 다만 字音과 釋義를 고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선택해서 기록하였다.”⁵²⁾라고 하였다.

확실히 《雲邁淡墨》은 학술적 가치보다는 천문과 풍수지리, 氣의 運行, 음식금기, 治病, 건강 상식, 농경의 경험, 각종 점술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수록하고 있다. 게다가 木增이 직접 찾아보고 참조한 문장들을 모두 기록하였다고 밝혔으니 내용이나 서술방식, 체계가 난잡할 수밖에 없었다. 즉 학술적인 의도에 의해 문장을 발췌해온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편하게 단편적인 문장을 발췌해오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록한 것이다. 《雲邁淡墨》은 정통 類書와는 다른 성격의 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平聲自相對, 平聲上聲相對, 平聲去聲相對, 平聲入聲相對 등 성조를 설명하거나 字體가 헛갈릴 수 있는 글자들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등 小學과 관련한 내용이 적지 않다. 필요할 때 가장 실용적이고 즉각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였고, 字音과 釋義를 고증하는 데 참고한 내용들을 모두 열거하였다는 사실에서 애초에 木增이 교육 자료를 염두에 두고 《雲邁淡墨》을 편찬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학술적 가치는 다소 떨어지지만 교육서적 가치로 본다면 《雲邁淡墨》은 분명 의의가 있는 자료이다.

더 나아가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雲邁淡墨》에 불교와 도교 경전의 문장까지 섞여 잡다한 내용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雲邁淡墨》을 정통 類書보다는 한참 수준이 떨어지고 우아하지 못한 서적으로 간주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雲邁淡墨》만이 가지는 개성이 될 수 있다. 《雲邁淡墨》 제 6권에 수록된 <釋莊義>가 대표적인 예이다. <釋莊義>는 《莊子》에 대한 陶宗儀의 해석을 먼저 수록하고, 이에 대해 木增이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글이다. 土司文學에서 전혀 볼 수 없는 독보적인 것으로 木增의 학문적 깊이를 보여

51) <雲邁淡墨小引>: 仍命其篇曰淡墨, 蓋諺語廣記之不如淡墨也.

52) <雲邁淡墨小引>: 俄而得者即以俄而失矣. 故每咕嚕之餘, 輒以楮筆記之, 其篇中或言之有補於身心者, 或言之有神於事務者, 抑或字音釋義有藉於考證者 悉擇而錄之.

주는 글이다.

예컨대 ‘逍遙’라는 글자에 대해 陶宗儀가 “한가하고 얽매이지 않으며 편안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⁵³⁾라고 해석한 문장을 먼저 제시한 다음, 木增은 다음과 같이 자신만의 해석을 제시하였다.

광대하고 자유롭다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번뇌가 다한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莊子は 形骸를 초탈해야 사라져 없어진다고 하였다. 지식과 재주는 一身에 도움이 이 되지 못하고 功名은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해탈하였다는 것은 무릇 허무를 가리킨다.⁵⁴⁾

逍遙를 불교적 의미 ‘해탈’로 해석한 것은 木增만의 독자적인 해석이다. 이는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雲適淡墨》만의 독보적인 개성이 될 수 있다. 《莊子》는 木增에게 매우 특별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서적이다. 38세에 은퇴하고 解脫林에서 사는 삶이 스스로 莊子가 강조한 逍遙遊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제6권 <釋莊義>만을 위해 趙士春과 毛晉에게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하여 수록한 것만 보더라도 木增이 <釋莊義>에 대해 얼마나 애착을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난잡한 체계는 <釋莊義>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木增이 어떤 근거로 《莊子》의 문장을 발췌했는지 알 수 없다. 마치 木增이 《莊子》을 읽고 즉흥적으로 자신의 감상을 쓴 독서노트처럼 보이기도 한다. <逍遙遊>에서 발췌해온 사례들을 보면, ‘逍遙’, ‘北冥’, ‘海運’ 등 단어만 해석한 부분도 있고, “芥爲之舟”, “置杯焉則膠”, “九萬里則風斯在下矣” 등 문장을 節錄해서 해석한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莊子》에 대해 木增만의 해석을 남겼다는 점에서 <釋莊義>는 너무도 의미 있는 문장이다. 한족 문인이 아니라 納西族 문인이 《莊子》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것이고, 원전을 읽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 사례이기

53) <釋莊義>陶纂: 閑散不拘, 怡適自得.

54) <釋莊義>木緝: 廣大自在之意. 佛以盡煩惱爲解脫, 莊生以超脫形骸泯絕. 知巧不以生人一身, 功名爲累, 爲解脫, 蓋指虛無.

에 더욱 의의가 있다. 《莊子》에 대해 불교적 해석을 시도한 <釋莊義> 덕분에 《雲蕩淡墨》은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학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는 서적이 되었다.

6. 나오며—여전히 꿈꾸는 하나의 중국

2010년 이후로 CCTV에서 소수민족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大理 白族의 이야기를 그린 <大理公主>(2009), <金鳳花開>(2009), 苗族과 哈尼族의 애국 이야기를 그린 <山間鈴響馬幫來>(2010), 藏族의 이야기를 그린 <香格里拉>(2011), 蒙族의 영웅 이야기 <嘎達梅林>(2011), <胡楊女人>(2011), 彝族의 여성영웅 이야기를 다룬 <奢香夫人>(2011), 조선족의 네 가족 이야기를 다룬 <長白山下我的家>(2012) 그리고 麗江 納西族 木增과 阿勒邱의 이야기를 다룬 <木府風雲>(2012) 등이 나왔다.

이 작품들은 다양한 소수민족의 모습과 그들의 생활, 長白山과 麗江, 玉龍雪山, 상그릴라 등의 웅장한 자연경관 등을 화면에 담았기에 시청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작품들이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단지 그런 소재적인 측면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양한 소수민족이라는 소재는 영상 제작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인물과 배경만 다를 뿐 나라에 대한 충성, 사회적 화합, 가족에 대한 사랑 등의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소수민족이 중화민족의 큰 틀 아래로 조화롭게 융화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 작품들이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소수민족의 일상생활, 복식문화, 음식문화 등을 담은 화면은 사실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다. 예컨대 조선족의 가족사를 다룬 <長白山下我的家>에서는 색동저고리의 한복, 장고춤, 비녀를 꽂은 여인의 자태 등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움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의미로 담아내는 틀은 여전히 유교적 전통의 화합, 충효 등의 정신이다. 더욱이 1960년대 이후 40년 동안 이어지는 가족사는 文革, 改革開放 등의 중국 현대사와 함께 묘사되면서 조선족이 중국의 역사에 조화롭게 스며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오늘날 하나의 '중국'이 만들어지기까지 다양한 소수민족은 하위의 선율들을 만들어내며 더 강렬하고 커다란, 하나의 '중국'이라는 주선율과 어우러져 왔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四川 永寧의 奢王府 彝族의 공주 奢香과 麗江 土司 木府의 이야기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가 된다. <奢香夫人>은 원명 교체시기의 역사적 배경으로 시작된다. 원말 몽고족의 梁王이 雲南을 점거하고 있을 때, 彝族의 공주 奢香은 貴州의 霽翠에게 시집을 갔다. 하지만 霽翠가 일찍 죽자 奢香이 섭정을 하고 彝族의 단합을 이루어내어 명나라 왕조를 도와 梁王을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彝族의 입장에서 보면,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잃어버리고 漢化되는 상황지만, 작품에서 奢香은 민족 간의 통합을 이루어낸 여성 영웅이 된다.

소수민족을 소재로 다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설정 중 하나는 中原 문화는 우수하며 한족 문화의 세례를 받은 인물이 늘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해결사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소수민족 출신 인물이 한족의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들이 어김없이 연출이 되고, 시점은 늘 한족 문화의 중심에서 주변문화를 바라보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奢香夫人>에서 奢香 역시 어릴 때부터 한족 문화를 배운 여인이다. 주변적 존재이지만 주류문화, 한족문화를 습득함으로써 역할의 정당성을 얻고, 민족의 화합, 중국의 통일을 이루어내는 여성 영웅으로 탄생될 수 있었다.

<木府風雲>의 木嬭은 처음부터 드라마로 제작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소재였다. 木嬭은 역대 소수민족 중에서 유교 문화를 가장 완벽하게 체현해낸 인물 이면서, 현재 중국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소수민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여기에 작자는 阿勒邱라는 가상의 여인을 등장시킨다. 阿勒邱는 納西族이 이상적인 여성으로 상상하고 있는 전설상의 여인으로 木嬭과의

사랑 이야기에서 마치 실존하는 여인처럼 묘사되고 있다. 실제 木增의 정실부인인 寧州 錄知府의 딸 阿室于도 작품에서 등장하고 있어, 阿勒邱는 더욱 사실적인 인물처럼 다가온다.

<木府風雲>은 麗江의 木府에서 일어나는 가족사를 다룬 작품으로 원수의 딸 阿勒邱는 복수를 하기 위해 木府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야기의 처음은 복수를 모티프로 시작하였으나 여기에 사랑이 가미되면서 결국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는 작품이 되었다. 교육 수준이 높은 木氏 가문의 남성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였고, 거기에 전설적인 여인 阿勒邱가 화합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복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사랑과 화합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 작품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상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충분하다.

이는 영화 <東方不敗>(1992)에서 묘족이 야만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더욱이 한국의 여배우 추자현이 여성 주인공 阿勒邱를 맡았으니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화합'이라는 전략을 보여주기에도 손색이 없다. 등장인물이 한족과는 다른 특별한 민속의상을 입고, 中原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광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중국인의 호기심을 끌 수 없다. 여전히 소수민족은 미개하고 주변적인 존재이기에, 하나의 '중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그들이 스스럼없이 漢化되고 '우리'와 동화되는 모습을 보일 때만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 參考文獻 >

木增, 《雲滄淡墨》, 北京圖書館所藏本.

宋濂, 《元史》, 北京: 中華書局, 1976.

張廷玉, 《明史》, 北京: 中華書局, 1974.

谷應泰, 《明史紀事本末》, 北京: 中華書局, 1977.

申時行, 《大明會典》, 北京: 中華書局, 1989.

- 木公, 《木氏宦譜》, 昆明: 雲南美術出版社, 2001.
- 徐弘祖, 《徐霞客遊記》,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1985.
- 管學宣, 《麗江府志略》, 麗江: 政協麗江市古城區委員會, 2005.
- 永塔·紀昀, 《四庫全書總目提要》,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 陳湘鋒, 《田氏一家言》,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9-2010.
- 謝國先, <試論明代西南地區土司多民族國家意識的象徵>, 《長江師範學院學報》第30卷第1期, 2014年2月.
- 胡紹華, <論容美土司文學與民族文化融合>, 《民族文學研究》2012年第1期.
- 楊林軍, <明代麗江土司木增遺作《雲蒞淡墨》述評>, 《雲南社會科學》2016年第2期.
- 彭福榮, <試論土司文學的特征>, 《西南民族大學學報》2017年第3期.
- _____, <國家認同: 土司研究的新視覺>, 《廣西民族研究》2012年第3期.
- 陳靜, <雲南麗江木氏土司的家族教育>, 《紅河學院學報》第16卷第1期, 2018年2月.

< Abstract >

A Study on Mu Tusi of Yunnan in Ming Dynasty

Kim, Jiseon

Yunnan, an area which was farthest from Central Plains, had an independent culture and history. Nevertheless, its procedure of attribution to imperial court was done smoothly. While some areas such as Sichuan violently resisted imperial court, Yunnan pledged allegiance to imperial court and embraced Central Plains culture actively. Tusi of border became sinicized while accepting Confucianism. With admiration for Central Plains culture, they wrote Chinese Poetry like Han literati, and they enjoyed Central Plains Art.

Among tusi of border, Mu tusi of Yunnan were excellent in cultural literacy and had an outstanding sense of loyalty. Mu tusi put efforts into family education for generations, and strived to make an environment for their

descendants to learn Confucianism and Central Plains culture. As a result, many outstanding literary people like Mu gong and Mu zeng appeared, and they wrote numerous literary works through the cultural exchanges with Han literati. Although Mu tusi were non-Han people, they received a positive evaluation from Han literati because they were excellent in loyalty and actively accepted Central Plains culture. The positive evaluation of Mu tusi has continued until recently, and a television drama was produced. This is a cultural strategy to highlight One China.

Key words: Yunnan, Central Plains, Confucianism, Tusi, Naxi, Mu zeng, Xuxiake, *Yunguo Danmu*, leishu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 4. 29	2019. 5. 10	2019. 5. 12	2019. 5. 26	2019. 6. 30